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7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모든 공무원에게 전립선암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공무원에게 전립선암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S.8107/A.409-B)은 전립선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최대 4시간까지의 유급 휴가를 규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립선암은 매년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의 종종 나타나는 파괴적 효과를 경감시키는 핵심은 조기 발견입니다. 저는 모든 공무원이 생명을 살리는 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만을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이 휴가를 허용합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에게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유급 휴가 시간을 허용하는 주지사의 2016년 유방암 보험 프로그램 법안의 요소를 반영합니다.

주 상원의원 Kemp Hann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립선암은 미국 남자들에서 2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고, 대략 7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이 질병을 진단받게 되므로, 저는 해롭고도 잠재적으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남자 공무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고무됩니다. 조기 발견은 너무도 만연해 있는 이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의 모든 공무원에게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허용되는 휴가를 연장하는 법률 규정에 서명했으며, 저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립선암 검진을 위해서 허용되는 휴가 또한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게 될 이 중요한 법률에 서명한 것에 대해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원의원 Jeffrey Dinowi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뉴욕주에서 거의 15,000명의 남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며, 거의 1,700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아주 단순히 말해서, 이 법률은 뉴욕시 공무원들에게 뉴욕주 공무원들과 평등한 처우를 제공하며, 잠재적으로 향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암에 관해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몇 가지 중 하나는 조기 발견이 보다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률이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전립선

검진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아울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유행암 검진을 옹호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